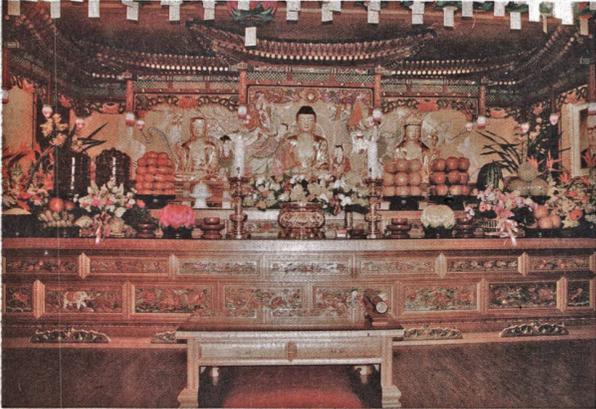




성화사 득락전(得樂殿) 아미타 삼존불 봉안 가지불사

“극락세계로 가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전당”



▲성화사 득락전 아미타 삼존불.



▲아미타 삼존불 봉안불사에 동참한 종단 승직자와 교도.

불교총지종 부산 성화사(주교 지광)는 구랍 12월 11일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해 전국 사원의 스승과 교도, 내외귀빈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득락전 및 아미타 삼존불 봉안 가지불사를 봉행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에서 “득락전(得樂殿)은 고통의 사바세계를 떠나 즐거움만 있는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전당이라는 뜻”이라며 “조상과 선망부모의 영위를 모시고 왕생성불을 기원 드리고 자신들도 불공하는 인연으로 밝은 지혜를 얻어 그 공덕으로 일체 서원성취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종령 예하는 이와함께 “아미타불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주관하며 무량한 광명으로 중생들의 서원을 성취해 주시는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은 대자 대비심으로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며, 자장보살은 지옥의 모든 중생들 마저도 구제하겠다는 대원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삼존불 봉안이라는 종단의 일대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종단의 여러 어른 스

승님들과 성화사 주교님을 비롯한 신정회 회장님, 그리고 교도분들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총무부장 경원 정사의 집공과 재무부장 시정정사, 밀교연구소 법경 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가지불사는 득락전 제막 및 비밀가지의개, 육법공양과 서원당에서의 개회사, 발원문, 유가삼밀, 종령법어, 봉축사, 만다라 합창단 축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화사 법정행 신정회장은 발원문에서 “성화사 진언도량에 서방정

신년법어



효강 불교총지종 종령

이제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많았던 해입니다. 특히 경제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이며 당분간 그러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중생들 모두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우리 인류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앞만 보고 달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인간관계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의 질도 더욱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된 행복의 지혜를 갖고 닦지 못하고 물질 위주의 행복만을 추구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 세계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자신을 잃지 말고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종교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 사회의 마지막 정신적 보루로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불자들이 항상 정도를 받

들어 사회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의 정신을 펼쳐 나아가자면 지금의 어려움은 도리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불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빌어 탐진치에 물든 나 자신을 돌아켜보고 이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앞장 선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기축년 한 해도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나 자신을 정화하고 그러한 정화를 바탕으로 사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선도하는 대승적인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중제망의 이 세계는 나 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전개되는 것입니다. 아집과 이기심의 집질을 벗고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구현할 때에 비로소 나의 행복과 내 가정의 안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이 불보살님의 가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변함없이 건강하시며 더욱 청정한 삶을 영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훎, 옴마니반메훎, 옴마니반메훎!



원승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새해를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교도님들 가정과 행복이 함께 하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올해는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일수록 부처님의 참뜻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와 신념으로 생활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절대적 진리는 인연법입니다. 내가 지은 것은 지은대로 받는 인과법입니다. 현실이라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일어나는 안팎의 일체 모든 경계는 어쩌다 생겨난 일이 아니요, 우연이나 숙명적으로 생겨난 일도 아니며, 그 어떤 절대자가 나를 시험해 보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모두가 내가 만들어 낸 환영이요, 잠시 분별심 내어 만들어 낸 거짓된 신기루이며 한바탕

꿈일 뿐입니다.

새해가 되면 갖은 일들은 다 거두어 주시고 늘 즐거운 일만 있게 해 달라고 부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서원에 앞서 ‘내가 지은 것 모두 내가 받았 습니다.’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체의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받아들이는 마음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괴로움 없는 이가 아니라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는 이요, 일체 모든 경계를 다 받아들이고 내안에서 모두 녹여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옹골짜기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 어떤 경계일지라도 내면의 자성부처님 마음속에서 다 받아들이고 녹일 수가 있습니다.

기축년 한 해에는 인연법과 인과법을 깨쳐서 일체 모든 경계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집착과 아집을 버리고 대자유인이 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창교절 기념법회 봉행 제2회 서울 경인교구 합창제도 개최



불교총지종은 구랍 12월 24일 전국 각 사원에서 창교절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창교절 기념 유

의 길을 열어 주신 종조 원정대 성사님과 흔들림 없는 종지로 종단을 반석위에 올려 놓으신 여러 스승님들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종령예하는 이와함께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승직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각오로 중생교화를 위해 성실과 정직 그리고 끊임없는 정진으로 모든 교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교도들은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신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총지사 서원당에서 열린 기념법회에선 오전 10시 대중불사 법요와 동참불사가 진행됐으며, 어린이 자성학교 영화상영 등이 별도로 진행되었다.

한편 창교절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경인교구 합창제도 개최됐다. 이날 서울 경인교구 합창단은 찬불가와 가곡 등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여 교도와 가족들의 열띤 성원을 받았다. 이와함께 정사, 각자들이 참여하는 혼성합창도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돋구었다.

종조법설

불법승佛法僧에 귀명歸命

대방광여래불사의경계경(大方廣如來不思議境界經)에 불(佛)에 귀명하는 자는 큰 복덕을 얻어 아득보리(阿耨菩提)를 속히 이루고, 모든 중생이 안락하리라 하였고, 법(法)에 귀명하는 자는 지혜가 증장하여 법의 자재함을 깨쳐 모든 법의 실성(實性)을 능히 안다고 하였으며, 승(僧)에 공양하는 자는 무량한 복덕과 지량(資糧)이 증장하여 불도(佛道)를 능히 이룬다고 하였느니라.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대도

불교총지종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종령 효강 대종사
통리원장 원승
중앙종의회 의장 대원
사감원장 지성
법장원장 범공
중앙교육원장 화령
동해중학교 이사장 의강

총무부장 경원
재무부장 시정
교정부장 선도원
사회부장 인선
통리원 임직원 일동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범등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대원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지공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밀공정
각 사원주교 일동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 김은숙
부산경남교구 신정회 지회장 신인록
대구경북교구 신정회 지회장 권오남
충청전라교구 신정회 지회장 민순분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사회복지재단
종보 통신원
미타회
장기요양센터
바라밀공부방

서울 강남구 역삼 2동 776-2 ☎ 02)552-1080-3 팩스 02) 552-1082 www.chongji.or.kr

기획연재 敎史를 통해 본 宗祖 苑淨 大宗師의 가르침 ⑦ / 밀교연구소 · 종학연구실 공동

“준제관음보살상을 모시다”

창종을 두 달여 앞둔 10월 3일,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준제관음상(准提觀音像) 조성을 시작하여 창종 이듬해인 1973년 1월 6일에 완성하셨다. 준제관음법(准提觀音法)은 종조 대성사의 입교개종의 정신과 대서원, 총지종의 교화 정신을 담고 있다. 준제관음법이란 준제관음보살의 진언으로 염송수행하는 법을 말한다. 이 법은 『대승장엄보왕경』과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근거한 것이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고통에 허덕이는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길은 오로지 밀교의 수행방편과 관세음보살의 진언 염송에 있다고 갈파하시고 창종이념과 교화방편을 거기에 두셨다. 『대승장엄보왕경』과 준제관음법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할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다. 『대승장엄보왕경』은 아사다시피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을 설하고 있는 밀교경전이다. 이에 근거하여 종조께서는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本心眞言)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 ‘옴나니반메훬’을 본존(本尊)으로 모셨던 것이다. 이 육자진언을 본존으로 모시면서 여기에 덧붙여 종조께서는 관세음보살의 또다른 모습인 준제관음보살을 중심진언으로 삼으셨다. 이 두 진언을 함께 지송하여야 상승적 공덕이 있음을 깨달으셨던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을 교화하는데 있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여 나타나는데, 이를 보문시현(普門示現)이라 하며 대표적인 변화관음보살이 준제관음이다. 준제관음보살을 육자진언과 함께 중심의계를 삼은 것은 『대승장엄보왕경』과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서 육자진언과 준제보살의 진언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육자대명왕진언』 108편을 염송하라! 진언은 ‘옴나니반메훬’이다. 만약 이 진언으로 머무는 곳마다 염송을 할 것 같으면 무량한 제불보살들과 천룡팔부 신장들이 집합하고, 또한 무량 삼매 법문을 갖추게 된다. 지니고 염송하는 지송인의 칠대 종족까지 모두 해탈을 얻게 되고, 뱃속에 있는 모든 기생충까지도 모두 보살위를 얻게 된다. 이런 사람은 나날이 유바라밀 원만공덕을 얻게 되고, 무진번제를 얻어 청정자를 얻게 되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를 타미에 접촉하게 되어도 일체 모든 성념의 독소를 여의어 보살위를 얻게 된다. 가령 사천하의 사람들을 모두 칠지(七地) 보살위(菩薩位)를 얻게 한 자, 모든 보살의 공덕이 육자주 1편을 염송한 공덕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주(呪)는 관세음보살의 미묘한 본심이기에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육자대명주를 책으로 썼다면 그 책은 팔만 사천 법장(法藏)을 써 얻은 공덕과 다를 바가 없다. 만약 굵은 보배로 여래의 불상을 미세한 먼지 수 만큼 만들었다 해도 이 육자 가운데 하나의 글자를 쓴 책의 공덕만 못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육자대명주를 얻었다면 이 사람은 탐진치 악에 물들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 주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도 탐진치의 병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 주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의 몸이나 손이 닿는 곳마다 눈으로 보는 곳마다 일체 유정들이 모두 속히 보살위를 얻을 것이고, 영원히 다시 생로병사 등의 고(苦)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육자대명주 설명을 마치고, 또 칠십 칠만 억 부처님이 계시는데 일시에 출현하셔서 같은 음성으로 준제주를 설하신다. 즉 이 육자대명주와 준제진언은 순서상

서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존 관세음보살은 육자진언 다라니로, 준제보살은 형상으로 모신 이유

종조 대성사께서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을 본존으로 모신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불보살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관세음보살을 택한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창종배경과 입교개종(立敎開宗)의 정신에서 읽을 수 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창종이념을 해방과 전쟁의 참상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는 일체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두었던 만큼, 그에 상응한 불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었으니 관세음보살을 본존으로 삼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세간의

뜻이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 ‘옴나니반메훬’을 중심진언으로 지송하고 있는 총지종단의 입장에서 진언 다라니의 법자 그대로 본존으로 모시는 것이 교의적으로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는 이상 두 개의 진언을 본존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준제보살은 달리 상(像)으로 모신 것이다. 총지종단에서 형상불은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를 같이 해왔다. 단지 정착되지 않았을 뿐이다.

준제관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의 ‘청정성’을 상징하는 보살

준제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변화관음(變化觀音)인 육관음(六觀音) 가운데 한 분이다. 인간세상을 교화하는 관음보살이다. 다른 이름으로 천인장부(天人丈夫)라고도 한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창종당시 조성하셨던 준제관음보살상. 「원정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관세음보살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면 모순으로 나타나면 모순으로 중생을 제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섯 분의 관세음보살, 즉 육관음(六觀音)이다. 육관음은 성관음(聖觀音), 천수관음(千手觀音), 마두관음(馬頭觀音),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 준제관음(准提觀音),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이다. 준제는 산스크리트어로 ‘춘디’(Cundi?)라 한다. 원래 춘디는 힌두교의 시바신의 왕비 격으로 등장하는 여신을 가리켰는데, 이것이 불교에 들어와 그 의미가 변형되었다. 중생들을 교화하는 관음으로 바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 불모(佛母)로 자리잡게 되었다. 준제를 번역하면 ‘청정(淸淨)’이란 뜻이다. 곧 심성(心性)의 청정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준제보살을 완전히 갖추어서 말하면, 칠구지불 모준제보살이다. 칠구지는 범어로 saptako?라 하는데, sapta는 일곱이요, ko?는 무수한 수를 말하고 숫자 역(億)이라고도 한다. 칠구지는 칠역을 뜻한다. 칠구지는 준제보살의 광대한 덕을 나타내는 말이다. 불모(佛母)는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준제보살이 관세음보살의 여섯 변화관음보살 가운데 한 분으로 보살의 신분이지만, 준제보살의 ‘청정’은 모든 불보살의 근본이므로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다. “보살인데 어찌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하느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청정함이 모든 불보살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준제보살은 칠구지 불모가 되는 것이다. 칠억이라고 하는 무수한 불모살의 어머니가 준제보살인 것이다. 청정한 덕성을 찬양하여 칠구지불모(七俱?佛母)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준제보살의 모공(毛孔)에서 일체 불보살이 태어난다고까지 하였다. 준제진언은 ‘나무 사다남 삼삼삼 못다 구치남 단야

중생을 구원하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었으므로 원정 대성사의 구국도생(救國度生)의 대비원(大悲願)에는 마땅히 관세음보살임을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을 설하고 있는 『대승장엄보왕경』은 총지종의 소의경전인바, 관세음보살이 총지종의 교의(敎義)와 수행체계(修行體系)에 근간(根幹)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형상불로 모시지 않고 곧 진언 다라니로 모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본존은 진언다라니의 범자로 하면서 준제보살을 형상불로 한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밀교종단임을 표방하기 위한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로자나 불은 진리의 세계로 흔히 이불(理佛)이라고 표현한다. 진리의 세계는 유행무형이다. 당연히 형상으로 나타낼 수도 없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주삼라의 모습을 불상이 아닌 다른 상징적 형상을 모신다고 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진리의 말씀인 진언다라니를 모시는 것이 더욱 밀교적인 것이다. 진언다라니를 그대로 본존으로 모신 것은 마음에 상(像)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마음의 깨달음, 진리를 세운다는

생들을 교화하는 관음으로 바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 불모(佛母)로 자리잡게 되었다. 준제를 번역하면 ‘청정(淸淨)’이란 뜻이다. 곧 심성(心性)의 청정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준제보살을 완전히 갖추어서 말하면, 칠구지불 모준제보살이다. 칠구지는 범어로 saptako?라 하는데, sapta는 일곱이요, ko?는 무수한 수를 말하고 숫자 역(億)이라고도 한다. 칠구지는 칠역을 뜻한다. 칠구지는 준제보살의 광대한 덕을 나타내는 말이다. 불모(佛母)는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준제보살이 관세음보살의 여섯 변화관음보살 가운데 한 분으로 보살의 신분이지만, 준제보살의 ‘청정’은 모든 불보살의 근본이므로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다. “보살인데 어찌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하느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청정함이 모든 불보살의 근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준제보살은 칠구지 불모가 되는 것이다. 칠억이라고 하는 무수한 불모살의 어머니가 준제보살인 것이다. 청정한 덕성을 찬양하여 칠구지불모(七俱?佛母)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준제보살의 모공(毛孔)에서 일체 불보살이 태어난다고까지 하였다. 준제진언은 ‘나무 사다남 삼삼삼 못다 구치남 단야

다 음 자례 주례 준제 사바하’라 한다. ‘귀하하옵나.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칠억 부처님이시여! 옴! 나아가소서! 일어나소서! 준제보살이시여! 사바하, 주재하시여!’라는 뜻이다.

준제진언의 공덕은 『준제다라니경』과 『대승장엄보왕경』,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서 모두 설하고 있다. 준제진언의 공덕을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서 다음과 같이 계승으로 설하고 있다. 『준제관음 진언은 공덕 무더기요, 적정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일체의 큰 재난과 모든 고통이 그 사람에게 침해를 하지 못하며, 인간세계 살 때나 천상에서도 존경과 복음이 부처같이, 이와같은 여의주 만나게 되면 결정코 최상의 정각을 얻으리라. 하였다.

또,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이르기를, ‘진언 하나를 지송해도 속히 성취할 수 있다는데 어찌 많은 진언을 제시하면서 또 준제진언을 사람들에게 지송하라 하는가? 준제는 일체 모든 진언을 총섭하는 고로 준제진언은 능히 모든 진언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진언은 준제진언을 포함하지 못한다. 마치 큰 바다가 백 개의 강을 응섭할 수는 있어도 백 개의 강이 큰 바다를 응섭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고 하였다. 준제진언을 불모다라니(佛母陀羅尼)라고 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만큼 준제진언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더구나 ‘준제진언은 더럽고 청결하고를 가리지 않고도 지송을 할 수 있는 고로, 즉 재가자든 출가자든 음주를 하든 육식을 하든 처자가 있던 불문에 부치는 고로 모두 다 지송할 수 있다’고 하였고 ‘아무리 계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준제진언을 지송하면 청정계(淸淨齋戒)를 얻고 묘덕(妙德)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바쁜 생활이 일상화 되어 있는 우리 중생들에게 더할 나위없는 진언이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행해져 내려오던 진언들을 모두 다 지송할 수 없다면, 준제진언만을 외워도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 『지명장의계경(持明藏義軌經)』에서 이르기를, ‘이 준제주(准提呪)는 여의주(如意珠)와 같다. 그러므로 준제주를 지송하는 자는 처처에서 하는 일들을 모두 다 성취할 것이다.’라고 했다. 서원 있는 자는 준제진언을 반드시 외우지다.

불자들이 독송하고 있는 『천수경』도 준제진언과 그 공덕을 찬탄하여 계승으로 설하고 있다. 『아급지승대준제(我今持誦大准提) 즉발보리광대원(卽發菩提廣大願) 원아정혜속원명(願我定慧速圓明) 원아공덕개성취(願我功德皆成就) 원아공복변정업(願我勝福遍莊嚴) 원공중생성불도(願共衆生成佛道)』 ‘제가 이제 준제진언을 지니고 외웁니다. 크고넓은 보리심의 서원을 세우오니 선정지혜 속히 밝아지길 원합니다. 일체 공덕 모두 함께 이루옵고 수승한 복 두루 닦아 장엄하셔서 중생들이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과 준제진언이 영원히 자리잡고 있다.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 수석연구원〉

(다음호에서 ‘실천수행법으로 시종법을 시행하다’를 연재합니다)

*금월호 사설은 6면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26일 까지

| | | | | |
|-------------------------|----------------------|----------------------|----------------------|--------------------|
| 개천사 경원 12.9 10,000 | 기로원 범수원 12.23 10,000 | 삼일사 김기영 12.16 10,000 | 지인사 연등원 12.24 10,000 | 석보련 12.17 10,000 |
| 개천사 정범수 12.9 10,000 | 기로원 범지원 12.23 10,000 | 선림사 심지장 12.22 10,000 | 총지사 최순전 12.8 184,000 | 김웅수 12.17 10,000 |
| 개천사 한영란 12.16 1,000,000 | 단음사 박호열 12.24 10,000 | 선림사 정복지 12.22 10,000 | 총지사 선도원 12.26 10,000 | 김미경 12.17 10,000 |
| 개천사 손 식 12.16 50,000 | 단음사 박주열 12.24 10,000 | 수인사 한애숙 12.2 30,000 | 총지사 김은숙 12.26 50,000 | 이봉탁 12.17 10,000 |
| 개천사 무명씨 12.24 5,000 | 단향사 이재은 12.4 10,000 | 수인사 이은희 12.10 10,000 | 통리원 지 정 12.23 20,000 | 김종학 12.17 10,000 |
| 개천사 장진식 12.24 20,000 | 단향사 행원심 12.4 10,000 | 수인사 장영택 12.10 20,000 | 해정사 지성인 12.15 20,000 | 정영학 12.17 10,000 |
| 건희사 박현희 12.24 120,000 | 만보사 지 성 12.9 10,000 | 수인사 김봉기 12.26 10,000 | 해정사 정은선 12.15 20,000 | 김경희 12.17 10,000 |
| 관성사 박현숙 12.3 10,000 | 만보사 승효제 12.9 10,000 | 시범사 환수원 12.9 10,000 | 해정사 최영래 12.15 10,000 | 김승희 12.17 10,000 |
| 관성사 해 정 12.9 10,000 | 만보사 민순분 12.11 10,000 | 시범사 진여행 12.24 10,000 | 해정사 박종석 12.19 20,000 | 김순선 12.17 10,000 |
| 관성사 정법계 12.9 10,000 | 만보사 이종구 12.11 5,000 | 실보사 이순옥 12.4 5,000 | 해정사 서 령 12.26 10,000 | 박해정 12.17 10,000 |
| 관성사 정인순 12.17 10,000 | 만보사 이경순 12.1 10,000 | 실보사 조순애 12.23 10,000 | 해정사 혜원정 12.26 10,000 | 김정규 12.17 10,000 |
| 관성사 박현숙 12.26 10,000 | 밀인사 이혜성 12.16 20,000 | 실지사 송우섭 12.2 5,000 | 해정사 오혜민 12.26 10,000 | 박운배 12.17 30,000 |
| 관음사 신막심 12.26 10,000 | 밀인사 이재호 12.3 10,000 | 실지사 무명씨 12.19 10,000 | 화음사 강순란 12.4 5,000 | 임동수 12.17 20,000 |
| 기로원 혜 암 12.17 20,000 | 백월사 신운산 12.10 10,000 | 실지사 록 경 12.22 10,000 | 화음사 류재환 12.16 10,000 | 송승자 12.18 10,000 |
| 기로원 최상관 12.17 20,000 | 법천사 김정숙 12.3 5,000 | 운천사 이승민 12.3 10,000 | 화음사 자심관 12.23 10,000 | 오일록 12.23 10,000 |
| 기로원 상지화 12.23 10,000 | 법천사 시 정 12.23 10,000 | 자석사 이판도 12.15 10,000 | 화음사 수 현 12.23 10,000 | 무명씨 12.4 1,000,000 |
| 기로원 불멸심 12.23 10,000 | 법천사 원만원 12.23 10,000 | 정각사 김문수 12.5 10,000 | 화음사 강태화 12.23 5,000 | 무명씨 12.17 10,000 |
| 기로원 법장화 12.23 10,000 | 법천사 박말조 12.23 5,000 | 정각사 강정익 12.11 20,000 | 화음사 박상운 12.23 10,000 | |
| 기로원 대자행 12.23 10,000 | 벽룡사 원 당 12.8 10,000 | 정각사 구정희 12.15 20,000 | 화음사 박상운 12.23 10,000 | |
| 기로원 대 관 12.23 10,000 | 벽룡사 묘삼해 12.8 10,000 | 정각사 변순개 12.18 5,000 | 홍국사 여순애 12.11 10,000 | |
| 기로원 총지화 12.23 10,000 | 벽룡사 이희숙 12.11 10,000 | 정각사 박수빈 12.19 10,000 | 홍국사 밀공정 12.11 10,000 | |
| 기로원 수증원 12.23 10,000 | 삼일사 원 송 12.4 10,000 | 정심사 오윤보 12.4 5,000 | 서울형인교 12.18 900,000 | |
| 기로원 사홍화 12.23 10,000 | 삼일사 인벽계 12.4 10,000 | 지인사 허성동 12.17 20,000 | 김위택 12.10 10,000 | |
| | | | 이숙남 12.11 30,000 | |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민다리의 복지세상 ④

사회복지는 불교실천의 장이다



▲총지중 바라밀 공부방

다. 그러면 불교의 사상속에서 사회복지의 실천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첫째로 자비사상이다. 자비사상은 실천면의 근간으로 자비행위를 통한 불(佛)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자비는 성불한 불타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체의 중생은 모두 복전이라 하여 중생을 위하여 자비행을 하는 보살이 되게 한다. 즉 자리아타(自利他)를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살이라고 하며, 보살의 자비 이타행을 실천하는 활동을 보살도라고 한다.

둘째로 보시사상이다. 보시사상은 자비심이 구현된 것이 보시인데, 「보(布)」라 함은 자기의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며, 「시(施)」라 함은 자기의 욕구를 거두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보시는 보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육바라밀 가운데 그 으뜸이다.

보시의 목적에 있어 지혜로운 사람이 보시를 행함은 이웃의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고, 타인에게 안락을 주기 위함이며 타인에게도 보시의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함이며 열반에 들기 위함이다.

셋째 연기사상이다. 연기사상은 불교에 있어 사회복지사상의 원천이다. 불교의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는데, 「연기」는 현상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존재의 생성과 발전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체만물은 서로 인(因)이 되고 과(果)되어 상호 불리의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한

가지도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생명존중사상이다. 생명존중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가르침이며, 남을 해치는 마음없이 모든 중생을 애민하는 가르침이다. 이와 같은 자비의 이타행은 당연히 생명존중에 의해서 나타나며, 인간에 한정하지 않고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생명도 존중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보살사상이다. 보살(Bodhi-sattva)은 깨달음을 구하는 유정이라는 의미로, 자기를 이롭게 하고 동시에 남도 이롭게 하는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라 하여 보살은 자리(自利)와 더불어 이타(利他)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보살은 중생을 이롭게 하며 중생을 정화하여 제도하는 것이 곧 자기의 수행이며 성불의 길임을 확신하고, 일체중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중생제도에 앞장 설 것을 서



▲어린이 수련대회

원하는데, 불교가 종교로서 현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도 불타의 대자비에 의한 구세의 서원과 활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교의 사상 자체가 사회복지라는 이념속에서 사회복지라는 불교와 별개라는 관념을 버리고 "사회복지가 곧 불교의 실천의 장이다"라는 관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향후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라는 관념을 버리고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어떻게 대중들의 고통을 해탈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의 활성화가 곧 불교의 활성화임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정(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서울의 노인선원은 20여년 전 서울 서초동의 조그마한 빌딩에서 포교당을 개설하여 20만 여 명의 신도를 자랑하고 있다. 노인선원은 그린벨트 지역에 대규모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복지관과 연계하여 법당을 조성하고, 어린이집을 만들었다. 대구에 신도 7만여명을 자랑하는 관음불교대학 관음사는 어린이집, 노인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개관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불교의 사상은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실천의 장이다. 즉 불교자체가 복지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복밭을 지으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 복밭은 무엇일까? 바로 사회복지의 실천이



▲총지중 경로잔치

총지동의보감

산후부중



조선화 원장
(여성 미 한의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의해야 할 산후조리 즉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출산 전의 몸 상태로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한의학적으로 산후보양이라고 합니다. 산후보양은 앞으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후 6-8주간을 산욕기라 하여 이 시기에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면 부종, 어지러움, 관절통증, 팔다리의 저린 증상 및 시린 증상, 두통 등의 일명 산후풍으로 고통을 하게됩니다. 특히 출산후 산모들의 특징은 얼굴과 전신의 부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부종은 일반적으로 삼강이나 신장 등의 이상으로 인한 병적인 부종과는 달리 산후에 약해진 기혈과 자궁수축과 회복의 과정에서 자궁내에 남아 있는 어혈로 인한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겪은 산모의 특징은 어혈과 기혈의 허약입니다.

그러므로 산후보양의 핵심은 어혈을 풀고 약해진 기운과 혈액을 보강하는 것으로 근간을 삼게 됩니다.

분만과정에는 반드시 어혈 즉 자궁과 골반 내에 고여있는 비생리적인 혈액 즉 어혈과 오로가 발생되므로 후에 어혈을 풀어주지 않으면 몸안에 축적

되어 산후부중 및 복통, 출혈, 전신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10개월 동안 태아를 양육하는데 모든 기운과 노력을 쏟은 탓에 산모는 약해져 있고 분만과정 중에서 출혈과 탈진 등이 겹쳐지면서 기운과 혈액의 대량소모를 하게 됩니다.

보통 분만 후 2-3일이면 자궁내 어혈을 풀고 기혈을 보강하는 치료를 통해서 어혈로 인한 후유증개선과 자궁수축을 촉진하며, 수유를 원하는 산모의 경우 모유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흔히 민간요법으로 산후부중에 좋다는 말만 믿고 가물치, 호박, 잉어 등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혈을 제거하지 않은 채 보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어혈의 배설을 방해하거나 산후발열, 전신통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산 후에는 반드시 산모의 체질과 증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조리약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출산 전 미리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가정에서의 적절한 산후조리법으로는

첫째 삼일간의 안정과 휴식을 취한다.

둘째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21-25도 40-60%)하여 과도하게 땀을 흘리지 않는다. 셋째 찬 음식을 피하고 찬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긴 팔의 얇은 내의를 여러 겹 입는다.

넷째 산모가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편안한 환경을 유지한다.

다섯째 딱딱하거나 짙은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삼간다.

여섯째 산후 자궁의 상처가 치유되는 8주까지는 성관계를 삼간다.

일곱째 산후 무리한 다이어트는 기능회복과 수유를 위해 단백질섭취와 영양공급에 신경을 써야 하며 이후에 남아있는 체중의 정도에 따라 서서히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죽비소리

복을 닦고자 한다면

선남자야! 만약 마음을 돌이켜서 공경하고 복을 닦고자 하면 세가지 법이 있다. 첫째는 불보(佛寶)요, 둘째는 법보(法寶)요, 셋째는 승보(僧寶)이다. 승을 공양하면 그 복이 백 배요, 법을 공양하면 그 복이 천 배요, 불을 공양하면 그 복이 만 배이니, 이것은 불·법·승 삼보에 귀명하는 무한한 복이다.

(대교왕경 大教王經)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관성사

기로스승 해정
주교: 전수 정법계
☎ (02)736-0950

밀인사

주교: 정사원 당
전수 묘심해
☎ (02)762-1412

벽룡사

주교: 정사법 일
전수 자행정
☎ (02)889-0211

법천사

주교: 정사시 정
전수 원만원
☎ (031)751-8685

시법사

주교: 전수 환수원
☎ (032)522-7684

실지사

주교: 정사특 경
전수 법수연
☎ (02)983-1492

정심사

주교: 전수 진일심
☎ (02)433-0374

지인사

주교: 전수 연등원
☎ (032)528-2742

총지사

주교: 전수 선도원
정사 화령
정사 법경
정사 지정
☎ (02)552-1080

진언공덕
가득하시길!

서울·경인교구 일동



대원
중앙 종의회 의장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고도 여러분과 가족들 그리고 인연된 모든 이들이 소원을 이루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무시무종(無始無終)이기에 새해나 지난해나 다를 바 없으나 세간사에 있어서는 지난해의 잘못을 참회하고 새로

해니 분별하는 것이 깨달음의 눈으로 본다면 날마다 새로운 날,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

는 것들입니다. 아울러 경도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바른길, 곧 중도의 삶이 그것입니다. 이를 한해는 그런 부처님이 지나 가신 그 길을 따라 올곧게 걸

“경도되지 않은 바른 길, 중도(中道) 실천”

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설계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운문선사는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눈으로 볼 때 새해니 묵은

아기가 하는가의 전범(典範)을 보이셨습니다. 팔정도의 길이 그렇고 중도의 길이 그것입니다. 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고, 생활하고, 정진하고, 생각하고, 선정을 유지하

어가는 불자님들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정진 수행과 대승보살행을 실천하는 새해가 되시고, 법신여래의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범등
서울·경인 교구장

해도 무심해질 수 있다면 고통도 적어지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인연된 모든 일은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행하고 기쁘게 마쳐야 합니다. 불퇴전의 기도정진으로 자신의 삶의 뿌리를 잘 지키고 자비와 지혜로써 자신과 이웃을 더 복되게 하며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공부하며 아름다운 나

잘 지키고 더 복되게

있는 기회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

는 것이며 내 작품이므로 고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이테 하나 더하는 행복한 새해가 되길 서원합니다.



밀공정
충청·전라 교구장

기축년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쳐서 부처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깨침이 필요한 것은 깨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우리는 나와 이웃, 나와 세계를 나누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

든 것에 욕심내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을 내고 어리석은 사견에 떨어져 삽니다. 그 결과는 바로 대립과 갈등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실다운 모습

세계를 사는 삶이 다름 아닌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공성(空性)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존재

결입니다. 깨침이 필요한 것도 실은 동체대비의 삶을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깨침과 지혜, 지혜와 지혜는 마치 동전의 앞 뒤 면과 같이 분리할 수 없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삶

에 눈뜰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환됩니다. 전환된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와 이웃을 돌로 보지 않는 삶이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삶입니다. 나와 남, 나와 세계를 나누던 벽이 깨지는 순간이 바로 깨침입니다. 그 벽이 깨짐으로 분리, 대립되던 나와 이웃, 나와 세계는 비로소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인

의 실상인 ‘하나’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므로 내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돕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허공을 날을 때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상을 남기지 않는 청정한 실천인 것입니다. 이러한 동체대비의 실현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이요, 우리의 세계를 정토로 바꾸는

하나인 것입니다. 더불어 있고 하나인 존재의 실상에 눈뜨는 깨침과 지혜가 있으면 동체대비의 삶 또한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존재의 실다운 모습에 눈뜨고 일체의 모든 생명을 위한 동체대비의 삶을 실천하여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보라과 아쉬움 속으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주인공을 불러봅니다. 자기를 움직이는 본래 면목인 태양같은 주인공을 찾아야 새로운 해는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네 중생들은 주인공의



지공
대구·경북 교구장

야 하겠지요. 마음에 복이 있는 사람은 복덕짓기를 즐기며 마음에 복이 없는 사람은 복덕을 쌓아가지 못합니다.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는 인과의 법칙을 안다면 가난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마음에 복덕을 짓지 않고는 제대로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같은 비로자나 부처님 찾기를

마음, 허공과 같은 반야의 마음이 아닌 욕심내고, 욕심대로 안되면 성내고, 어리석어 전도된 생각에 빠져 있는 삼독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늘상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여실히 볼 아는 정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게 바뀌면 생각이 바르게 바뀌고 행동이 바르게 바뀌고 운명이 바르게 바뀌어

이와함께 선업과 복을 지어

기축년 새해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닌 이것, 우리의 본래 자성자라인 주인공을 찾는 데 온 힘을 기울여 큰 태양같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찾고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공덕

어느 때 무진의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곧 그 음성 듣고 그들을 다 해탈케 하는 것이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실상 큰 불속에 들어가도 이 보살의 위신력으로 인해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합니다. 큰 불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러 됩니다. 진귀한 보배를 얻으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 폭풍으로 나탈의 나라에 표착했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탈의 난을 벗어

날 수 있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없던 손발이 쇠고랑에 채워지고 몸이 사슬에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모두 다 부서져 곧 벗어나게 될 것이요.

진귀한 보물을 가진 상인들이 도적 떼가 들끓는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서워하지 말고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시오. 이 보살은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이름만 불러도 도적들의 재난을 면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여러 상인들이 함께 소리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재난을 면하게 될 것이요.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은 이와 같이 헤아리기 어렵소. 음욕이 많은 중생이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그 음욕을 버리게 될 것이요. 미워하고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마음을 버릴 수 있고, 업장이 두터워 어리석

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버리게 될 것이요.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큰 위신력이 있어 이롭게 하니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하오.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며 관세

음보살께 예배하고 공경하면 복덕과 지혜 있는 아들을 낳을 것이며, 딸 낳기를 원하면 단정하고 잘생긴 딸을 낳을 것이요. 그는 전생에 덕의 종자를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요.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있을 것이니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야 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法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업의 본성

문수보살이 보수(寶首)보살에게 물었다.

“중생은 지(地)·수(水)·화(火)·풍(風) 네 요소로 되어 그 안에는 자

이듯이 업의 본성도 그와 같습니다. 종자와 밭이 서로 모르지만 싹이 트듯이 업의 본성도 그와 같습니다. 많은 새가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듯이 업의 본성도 그와 같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따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듯이 업의 본성도 그와 같습니다.” <화엄경 보살명난품 華嚴經 菩薩明難品>

◇덧없이 흘러가는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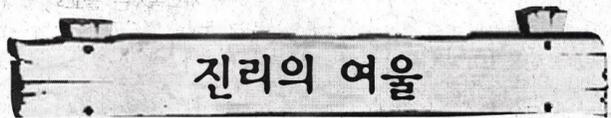
문수보살이 재수(財首)보살에게 물었다.

“여래가 중생을 교화할 때 무슨 이유로 중생의 시간과 수명과 신체와 행위와 견해 같은 것에 수순(隨順)해 주니까?”

재수보살은 대답했다. “지혜가 밝은 분은 항상 적멸의 행을 원합니다. 나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안에서 관찰해 볼 때도 대체 내 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세히 살펴본 사람은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부분을 살살이 살펴보면 어디에도 그 근본이 될 만한 곳은 없습니다. 몸의 형편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몸의 어디 에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화엄경 보살명난품 華嚴經 菩薩明難品>

육체와 정신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불의 바퀴(旋火輪)와 같아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연으로 생기는 업은 꿈과 같아 그 결과도 모두 허망한 것입니다. 세상 일은 마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관에 의해 판단을 내리는 것도 그 견해가 뒤바뀌기 쉽습니다. 생멸 변천하는 세계는 모두 인연으로 일어나 순간순간 소멸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존재는 덧없이 흘러가 버리고 텅 비어 그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관찰하여 집착하지 않습니다.” <화엄경 보살명난품 華嚴經 菩薩明難品>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만 보 사

주교: 정사 지 성
전수 승효제
☎ (042)255-7919

백 월 사

주교: 정사 범 우
전수 인지심
☎ (042)527-5470

법 황 사

주교: 정사 승 원
전수 묘원화
☎ (062)676-0744

혜 정 사

주교: 정사 서 령
전수 혜원정
☎ (043)256-3813

흥 국 사

주교: 전수 밀공정
☎ (063)224-4358

충청·전라교구 일동

사설

새해에 바란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늘 새롭고 가슴이 벅차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새로움에는 기대감과 함께 걱정도 앞선다. 불확실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늘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알 수 없는 기대감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지난 해에 대한 반성도 함께 곁들여져야 할 것이다. 지난 해에 나는 얼마나 부처님 말씀에 충실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새로운 해를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다. 내년을 잘 맞이할 수도 없고, 지난 해와 똑같은 잘못된 습성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만다. 발전 없는 삶이 십상이다.

금년은 12지 가운데 축(丑), 소의 해에 해당한다. 간지로 기축년이다. 소는 부지런함과 우직함의 상징이다. 시간으로는 밤 1시에서 3시 사이다. 밤새 풀을 먹은 소가 한참을 반추하여 이른 아침 발굽을 준비할 시간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더없이 허리끈을 졸라매야 할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더욱더 의미심장한 소의 해라 할 수 있다. 모든 면에서 부지런함이 요구된다. 몸과 마음, 가정과 사회, 생활과 정신건강, 모든 것이 그렇다. 그 가운데 마음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마음 밖의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이기는 자는 천하를 얻을 수 있으나 마음에 지는 자는 천하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은 허상만을 쫓을 뿐이다.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한다. 또 자유로워지고 싶어한다. 불교에서는 행복과 해탈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종당에는 폭류처럼 흐르는 마음을 잘 다스려 걸림이 없는 삶을 누리는 것으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서 천근 만근이나 되는 업장을 소멸하고 윤회의 사슬을 끊어내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서 불자로서의 삶의 목적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수행과 기도, 그리고 참회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몸과 마음을 닦아 지혜를 얻어 윤회를 끊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수행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윤회를 끊어 해탈에 이르는 것이 기도와 참회이다. 기도는 무작정 절대자에게 바라고 빈다는 뜻보다 그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강하다. 나아가 그런 다짐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굳세고 튼튼해져 쉽게 좌절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수행과 기도에서 모두 요구되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의 집중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 집중 속에서 깊은 삼매에 들게 된다. 이 삼매의 경지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수행이라면 부처님의 가지력(加持力)을 얻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단에서는 부처님의 비밀스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진언연송법을 주로 하고 있다. 기도나 수행에 들어가기 앞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절차가 있다. 바로 참회(懺悔)다. 참회란 과거의 잘못을 누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다. 온갖 잘못된 편견과 행위, 독선에 가득 찼던 자신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이러한 참회로 말미암아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된다. 매년마다 그렇게 해왔지만 금년 한 해는 다른 그 어느 해보다 기도와 참회가 어우러지는 참수행의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한다.

살기쉬운 밀교상식<26>

밀교의 경전 ②

밀교의 대표적 경전—《대일경》

《대일경(大日經)》은 《금강정경》과 함께 밀교를 대표하는 경전이다. 《대일경》의 원래의 이름은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라고 한다. 이 경은 대략 7세기 초에 서인도에서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산스크리트 원전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문헌에 인용된 것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다.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모두 7권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밖에 티베트도 남아 있다. 한역은 인도의 선무의(善無畏)삼장이 80세에 중국으로 건너와 제자인 일행(一行)스님의 도움을 받아 당나라 현종 때인 724년에 번역을 완성했다. 선무의 삼장은 원래의 이름이 슈비카라 심하라고 하는데 대소승의 모든 교리에 통달하고 밀교의 진수를 체득한 분으로 《대일경》뿐만 아니라 《대일경》의 해석서인 《대일경소(大日經疏)》 20권을 남겼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밀교 의식에 관한 것을 번역했다.

《대일경》이 나오기 전에는 밀교경전이 다라니의 공덕을 통하여 현세의 이익을 성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른바 잡밀경전이 대부분이었지만 《대일경》이 나오고 나서 밀교는 비로소 성불을 지향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차원 높은 불교가 되었다.

《대일경》은 다른 대승경전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뚜렷한 특징은 《대일경》을 설하는 주인공이 대일여래(大日如來)이다. 불교의 경전은 거의 모두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

님께서"하는 식으로 시작된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많은 비구, 비구니들과 다른 대중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대일경》에서는 우주의 진리를 인격화한 부처님인 대일여래, 마하비로자나부처님께서 모든 보살의 대표적인 금강살타보살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설법이 전개된다. 즉 역사상의 부처님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벗어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인격체인 비로자나부처님께서 설법하신다.

《화엄경》에서도 비로자나불이 등장하지만 직접 설법하지는 않는다. 《화엄경》의 교주인 비로자나불은 깊은 명상에 들어서 스스로 설법은 하지 않고 깨달음의 경지를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 등의 여러 보살들이 대신하여 설법하게 한다. 그러나 밀교의 비로자나불, 즉 대일여래는 교주이면서 스스로 설법한다. 이것을 대일여래의 '법신설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화엄경》에서의 비로자나부처님은 보신불적인 부처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화엄경》의 비로자나불은 '보살도를 행하며 무량한 법문을 닦아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으로 묘사되고 있다. 원래는 부처님이 아니었는데 오랫동안의 수행을 통하여 부처가 되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밀교의 대일여래는 무시무중, 무량무변의 우주 그 자체이며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원래부터 그러한 부처님이

시다. 즉 진리 그 자체, 우주 그 자체의 인격화가 바로 밀교의 비로자나부처님인 대일여래라는 의미이다. 그러한 대일여래께서 직접 설법하시는 경전이 바로 《대일경》이기 때문에 밀교도들은 《대일경》이 그 어떤 경전보다도 뛰어난 경전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

《대일경》은 내용상 교리부분과 실수(實修)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전통적인 밀교교학에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교상(敎相)이라고 하고 수행방법을 실한 실천부분을 사상(事相)이라고 한다. 밀교에서는 교상과 사상을 '수려의 두 바퀴'라느니 '새의 양 날개'라느니 하면서 교상과 사상을 동등하게 중요시한다. 어느 것이 빠져도 완벽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며 교리와 실천이 균형을 이루어 잘 닦여졌을 때에 밀교의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대일경의 교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의 《입진언문주심품(入眞言門生心品)》(약칭 주심품)에 실려져 있다. 실천부분은 《입만다라구연품(入曼荼羅具緣品)》(약칭 구연품) 이하에 실려져 있는데 《주심품》을 제외한 대일경의 대부분은 의궤나 만다라 작법 등과 같은 실수(實修)에 관한 것이다.

《주심품》에서 대일여래는 금강법계공에 머무르고 계시는 것으로 묘사된다. 거기에서 진리의 상징인 금강저를 든 집금강(執金剛)들과 여러 보살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상수인 집금강비밀주(執金剛秘密主)가 대일여래에게 '일체지지(一切智智)'에 대하여 질문한다. 일체지지라는 것은 최고의 깨달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대일여래는 일체지지만 "보리심을 인으로 하고 대비를 근본으로 하며 방편을 구경으로 한다"고 대답한다. 즉 최고의 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일체 중생에 대한 끝없는 자비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일

체 중생을 구제하는 활동이야말로 최고의 깨달음의 궁극이라는 것이다. 방편이 구경이라는 이 말은 대승불교의 극치를 나타낸 말이다. 이것이 《대일경》의 중심사상으로서 흔히 이것을 '삼구(三句)의 법문'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보리심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실지자심(如實知自心)'이 바로 보리심이라고 대답한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바로 안다는 것이다. 즉 스스로의 마음에서 보리와 일체 지지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160가지의 세속적인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러한 마음을 초월했을 때에 보리심이 일어난다고 한다.

《구연품》에서는 만다라를 건립하는 순서가 설명되어 있는데 만다라를 건립하기에 앞서 밀교의 법을 전수하는 아사리의 자격에 관한 것이라든지 제자를 선별하는 것 등이 설명되어져 있다. 《구연품》이하 《대일경》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관정(灌頂)이나 의궤에 대한 밀교의 비밀실천법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수행자와 대일여래의 입아어입(入我我入)을 목적으로 하는 오자엄신관(五字嚴身觀)은 《대일경》에 의거한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대일경》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만다라를 '대비태장생만다라(大悲胎藏生曼荼羅)'라고 하는데 줄여서 '태장만다라'라고도 한다. 이 만다라는 대일여래의 대비에 의하여 나타나는 세계를 묘사한 것으로 우리 중생들이 자신에게 갖추어준 보리심을 자각하여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밀교의 수행자는 만다라 앞에서 삼밀가지(三密加持)를 통하여 대일여래의 진리의 세계와 하나가 되는 것(합일(合一))을 지향한다. 이러한 것이 《대일경》의 대략적 내용이다.

-화평(중앙교육원장/ 철학박사)

불교설화 <30>

영혼을 깨우는 소리

-찬불가로 불음 전하는 송춘희 보살

음악은 인간의 맑은 감정과 영혼을 일깨우는 감동적/울림이다. 찬불가로 불음을 전하는 일은 그래서 사자후 같은 절절한 호소력을 지닌다. 찬불가로 어둠을 밝히며 세상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가수 송춘희 보살(62). 그의 음악 세계가 20여년간 불자들의 영혼을 울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위력이 숨은 배경이다.

10여년간 위장병, 심장병 등 온갖 질병을 분신처럼 견디고 살다시피한 송 씨는 76년 미국공연시절, 송산 스님 천견으로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이른 것도 전생의 업"이라는 말씀에 크게 감명을 받은 송 씨는 병고를 해결하기 위해 전념한 기도의 힘으로 3개월만에 질병을 완치했다.

그 후 송 보살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8참회와 3천번 이상의 관음정경을 일상화한다. 그러던 1980년 어느 날, 당시 미

국 영주권을 가진 그가 프랑스 공연을 마치고 영국에 잠시 머물렀었다. 핸드백에 여권과 지갑을 챙기던 평소의 습관과는 달리 그날은 자신도 모르게 여권과 3백달러를 요대에 넣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역경을 겪는다. 그나마 여권을 챙긴 게 다행이었지만 대사관에서 미국 영주권을 재발급 받는데 무려 30일이 걸린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한다. 직원에게 통



송과 1천 8백배로 보낸다. 방음이 안돼 옆방에서 자던 외국인이 경찰에 고발해 쫓겨날 뻔한 극한상황에도 기도와 염송은 끊이지 않는다. 삼일째 되던 날 밤이엿

다. 기도삼매에 빠져 관세음보살만 애타게 찾던 그 앞에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엄한 관세음보살이 웃음이 미련한 얼굴로 나타났다.

순간 침대에서 떨어져 잠을 깬 그는 신심이 솟구쳐 밤새도록 괴근한 졸도 모른 채 일심으로 기도한다. 어느새 창가에 부서지는 햇살을 맞으며 일찍 대사관에 도착한 송 보살, 드라마같은 기적아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예측이나 했던가.

대사관 주위를 맴돌며 염송하는 그를 본 직원은 "기도를 했습니까. 당신은 큰 행운을 얻었습니다"라며 미국 임시 통행증을 발급해 주는게 아닌가. 영주권 번호조차 몰라 빨라야 3주 걸리는 재발급이 불과 3일 만에 기적같이 이뤄진 것이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던진 감격스런 한마디였다.

현재 송춘희 보살은 교도소 양로원 등 그늘진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환희심 넘치는 불음을 전하고 있다.

-심일화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화사

주교: 정사덕 광
전수보현
☎ (054)761-2466

개천사

주교: 정사경 원
전수정법수
☎ (053)425-7910

국광사

주교: 정사안 성
전수유가해
☎ (054)772-8776

단음사

전수지현
☎ (054)333-0526

선립사

주교: 전수심지장
☎ (054)261-0310

수계사

주교: 전수안주화
☎ (054)745-5207

수인사

주교: 정사지 공
전수지희심
☎ (054)247-7613

승천사

기로스승원 봉
☎ (054)746-7434

제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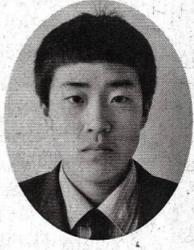
주교: 전수법상인
☎ (053)743-9812

진언공덕
가득하시길!

대구·경북교구 일동

총지문에

그립고 믿지만 사랑합니다



이진형 동해중 3-8반

나는 내가 싫다. 나약해지는 내가 미워진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날 외면한다. 나를 슬프게 하는, 나약하게 만드는 이야기.....

어느덧 나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화창시절이 시작되었다. 중학교 고복을 입고 학교에 첫 등교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다칠 시련을 예상하지 못했다. 누가 4월을 잔인한 달이라 했단가. 그해 4월 어머니는 영원히 나의 곁을 떠나버렸다. 세상이 싫어졌다.

그 전날 나는 집에 혼자 있었다. 비는 내리는데 내 곁에는 그 누구도 없었다. 무서웠다. 울지 않으려고 바

보처럼 웃어도 봤지만 그 때의 불안함은 나의 눈물을 원하는 것 같았다. 울고 말았다. 그러다 지쳐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어도 나는 혼자였다.

학교에 가도 두렵고 마음이 뛰었다. 그것도 잠시, 담임 선생님께서 오셔서 조퇴하고 집에 빨리 가보라고 하셨다. 서둘러 집에 도착하였다.

집에는 친척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곧바로 어디론가 출발했다. 도착한 곳은 장례식장이었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 어머니는 간데 없고 웃고 있는 영정사진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차마 어머니의 영정사진

을 볼 수가 없었다.

그 후 3일간 정말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계속, 계속해서.....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젠 나의 생활도 그러저럭 적응이 되어간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는 애들을 보면 가슴 한 구석이 찡하고 썰렁해진다. 보고 싶다. 그러나 이젠 울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 날 지켜 보고 웃고 있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 가슴 속에도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김석중 지음 / 조계종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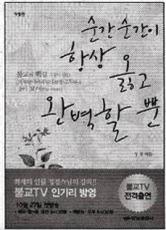
이 책은 신문사 종교기자들이 중국 선종사찰순례를 다녀온 기록을 엮은 것이다. 2007년에 '선(禪)의 원류를 찾아서'와 2008년에 '간화선 순례'를 주제로 중국 선종사찰을 답사하고 선승 고우 스님의 안내로 불자들이 동행하였는데, 여기에 일간신문 종교 기자들이 취재자 겸객간 기록들을 담고 있다.

모두 20여 곳의 사찰을 답사한 기자들은 '각자 자신의 안목에 따라 한국에 전해졌던 중국 선(禪)의 역사, 그리고 아직껏 남아 있는 문화에 대해 글로 낱말이 풀어놓았다. 최근 간화선에 대한 열기 고조와 이에 따른 중국 선종사찰 순례가 빈번하다. 이 책은 또 다른 '순례'를 꿈꾸는 이들에게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눈감는것이 항상 옳고 앞뻐할 뿐

정경 스님 지음 / 하남 출판사

불교의 핵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270자를 오랜 동안 성찰해온 스님의 철학과 해학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 책은 불교가 '종교가 아닌' 자기 '무지'를 걷어내고 '최상의 지혜'를 깨달아 가는 '지극히 인간적 일 수밖에' 없는 수행이라고 단호히 정의 내린다. 그러면서 기복적인 종교의 허상을 빨리 벗어날 것을 권유하면서 종교의 참된 역할이란 '중생의 어리석음을 덜어 내어 무지(無知)가 야기하는 여러 불합리하고 위험스런 상황에서 인류와 사회를 구해내는 데 있다'고 못박고 있다. 통쾌하리만큼 명확하게 '반야심경'의 핵심을 풀이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 불교의 본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영불선이다

주경 지음 / 무한



영불선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이 영불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통해 참선수행을 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믿음, 앎, 실천수행, 깨달음의 네가지 주제로 나누어 영불과

선에 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일상생활과 인격수양에 대한 지침들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자비하신 부처님의 영험과 전설

권영한 지음 / 전원 문화사



부처님의 영험담과 전설을 정리하여 초발심하는 사람들 마음에 신앙심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저자는 책에 소개된 경험과 유사한 일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모두 생길 수 있고, 믿음으로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제 1장 '부처님의 영험'과 제 2장 '불보살의 전설'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 20편과 40편의 사례를 수록하고 있는데 실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각 사례마다 소재지의 주소와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만희 / 운주사

행동하는 양심이 부처임을 강조한 삼삼 스님의 자서전. 2004년 4월, 64세라는 나이에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에 입관하여 수행하다가, 2005년 3월, 무상의 꽃 한 송이를 그려놓고 열반에 든 저자의 치열한 삶과 수행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병뚜껑을 동전으로 착각하고 수도승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53일 간의 단식 참회 끝에 양심이 불성임을 깨닫지만, 몸은 장애를 갖게 된 저자의 구도자적인 모습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세상의 욕망을 끊고 무소유의 삶을 살며, 권력이나 위선에 거침없는 사자후를 하여 과각승으로 불린 저자의 무문관 수행일기 등 구체적인 자료를 담아 그의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불교와 문화

대한불교진흥원



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이 발행하는 대중 포교지인 월간 <불교와 문화>가 12월호로 100호가 됐다.

<불교와 문화>는 100호 특집으로 '괴연, 한국 불교에 재가불교가 있기는 한가'를 마련해 출·재가자의 입장에서 오늘날 재가불교의 상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 밖에 △집중인터뷰 작가 고은을 만나다 △아! 불교와 문화 사진으로 보는 월간 <불교와 문화> 1호~100호 △특별기획 상생의 삶, 친환경운동 어디까지 왔나 △현장 속으로 걸췌 특별 초청 강연, 법륜 스님 '죽음철학' 등이 수록됐다.

우리들의 이야기

정각사의 풍경소리

보리수 곁가지에 속살이 애처롭다

자성일 풍경소리

세월 문은 열반송

서원당 만다라 미소 자비 광명 피우리

손때가 소록소록 염주알로 피어나고

정각사 풍경소리

천수경 인연이다

처마끝 억양의 인연 세월 속에 새기리

겨우내 참은 인연 비둘기가 타종하다

각자님 환한 웃음

보살님 고운 미소

집까지 오마루 담화 이름 없는 누리꾼,



탁상달 동해중 교사

[필자 소개]

- 경북 인동 출생, 시인, 시조시인
- 삼덕문학 신인상으로 등단(2000)
- 전국시조백일장 장원으로 시조시인 등단(2004)
- (새시시) 동인, (시조시인) 동인
- 부산시조시인협회 이사,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
- 부산문인협회 회원, 청소년문예진흥회 회원
- 책임부산시림포 모듬회장
- 전국독서사살결모임 부산회장
- 한국도서관협회부산협의회 이사
- 부산광역시 교육청 장학요원
- 현 부산 동해중학교 근무

기축년 새해, 이런 가훈 어떠세요

연말 연초가 되면 가족, 화목과 개인의 발전을 기원하는 뜻으로 한해 가훈이나 결심을 표현할 좋은 글귀를 정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글귀를 살펴 보겠습니다.

- 家和萬事成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무엇이든지 잘되어 나간다
- 苦盡甘來 (고진감래) 고생끝에 낙이 온다는 말
- 公平無私 (공평무사)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다
- 克己復禮 (극기복례) 욕망을 억제하여 바른행동을 한다
- 公生明 (공생명) 공평하면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다
- 見仁見智 (견인견지) 사람은 보는것에 따라 생각을 달리한다
- 結者解之 (결자해지) 자기가 저지른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 結草報恩 (결초보은)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
- 教學相長 (교학상장) 가르침이나 배움이 나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

또 불교경전을 보면 수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 가지만 추천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유지족 (吾唯知足) 모든 일에 만족함을 알다

자작자수 자복자취 (自作自受 自福自取) 매사의 일은 스스로 지어 스스로 복을 받는다

기축년 한해 꼭 소원이 이루어져 만족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약해 봅니다.

- 법일(통리원 사무국장)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 | | | | | |
|---------------------------------------------------------------------------|-------------------------------------------------------|-------------------------------------------------------|---------------------------------------------|---------------------------------------------|-------------------------------------------------------|-------------------------------------------------------|
| 정각사 주교: 정사 대 원 전수 정인화 정사 도 현 전수 자인행 ☎ (051)552-7901 | 덕화사 주교: 정사 법 등 전수 인택식 ☎ (051)332-8903 | 관음사 주교: 전수 정원심 ☎ (051)896-1578 | 단향사 주교: 전수 행원심 ☎ (055)644-5375 | 밀행사 주교: 전수 금강륜 ☎ (055)354-3387 | 법성사 주교: 전수 묘홍 ☎ (051)468-7164 | 삼밀사 주교: 정사 원 송 전수 인법계 ☎ (051)416-9835 |
| 성화사 주교: 정사 지 광 전수 수심정 ☎ (051)254-5134 | 실보사 주교: 정사 우 인 전수 보명심 ☎ (052)244-7760 | 운천사 주교: 정사 인 선 전수 정계월 ☎ (055)223-2021 | 일상사 기로스승: 수행월 ☎ (055)352-8132 | 자석사 주교: 전수 해안정 ☎ (051)752-1892 | 화음사 주교: 정사 수 현 전수 자심관 ☎ (055)755-4697 | |

부산·경남교구 일동

영화에서 불고보기

티벳에서의 7년

이기적인 남자의 내면 소리 찾기

사람이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만큼 변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티벳에서의 7년>의 주인공 하인리히 하러는 변했습니다. <티벳에서의 7년>은 주인공 하러가 사회적 자아를 포기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티벳의 종교적 풍토와 신의 산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해서 보여주는 귀한 불교영화입니다.

이기심으로 뚝뚝 뚫려던 하러를 변하게 한 것은 티벳의 종교인 불교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티벳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 하러처럼 우리도 이 영화를 보면서 불교라는 종교가 추구하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티벳에서의 7년>(미국, 1997)에서의 하인리히 하러는 원래 굉장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를 이기적이나면, 자신의 괴물인 아들조차 귀찮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버렸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매정하게 뿌리치고 기약 없이 산으로 도망쳤으니 아들을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나 다시 아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지요.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 보면 이기적인 아버지가 티벳에서 이기심을 극복하고 아들을 찾아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게 기본 열개입니다. 하나 여기서 나오는 아들을 그냥 아들로 보게 되면 영화가 갖고 있는 본래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한 게 이 '아들 찾기' motif입니다. 이 영화의 전체 분위기에서도 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찾기'가 역지스롭게 이 영화에 끼어들게 된 것은 아마도 이 영화가 헐리우드 자본으로 미국의 톱스타 브래드 피트를 내세운 미국영화화도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즐기는 주제가 돌아온 아버지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종교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영화에서 미국 내 사회문제인 아버지 역할 찾기가 끼어든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을 하러의 자아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잊고 사는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아주 즐거울 때라던가 아름다운 걸 봤을 때, 아니면 종교적 체험의 상태에서 가끔씩 나타나는 낯선 자아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 내면의 목소리지요. 아들을 찾는다든가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삶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하러의 삶은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느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 하러는 티벳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걸치레에 치중하던 삶에서 내면에 귀 기울이는 삶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

니다. 티벳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러는 티벳에서 7년을 머무는 동안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티벳에서의 7년>은 오스트리아의 유명 산악인 하인리히 하러의 실화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대표적 감독인 장자크 아노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하인리히 하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명의 책을 출간했는데 영화는 그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의 실존인물을 인터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작품으로 즐겨리는 하러의 궤적을 그대로 좇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산악인 하러는 나치 당원의 명예를 걸고 히말라야 최고봉인 낭가 빠르바트로 등정에 나섭니다. 하나 산이 받아줘야 올라갈 수 있는데 산사태 등 혹독한 기후로 등정에 실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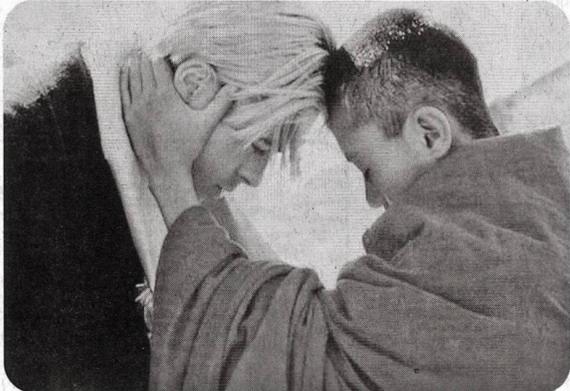
또 설상가상으로 네팔에서는 영국군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뼈빠움처럼 자유에 목매는 사나이 하러는 수용소를 탈출해 거지 몰골로 히말라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금단의 땅 티벳 라사까지 흘러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달라이라마와 교분을 쌓으며 7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티벳은 중국 공산당의 침입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고, 하러는 고향으로 돌아가 훌쩍 자란 자신의 아들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하러는 아들과 함께 히말라야에 올라 티벳 국기를 꽂습니다. 아마도 티벳의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은 장면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지구상에 티벳 같은 나라 하나쯤은 남아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오직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열악한 삶의 조건을 견뎌내는 티벳인들은 삶 자체가 종교라고 할 정도로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자비심과 인정이 살아있는 순수한 민족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떤 나라보다도 수승한 민족이지요. 물질주의가 세계를 휩쓸고 간 지금에 아직도 이렇게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은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참 보기 좋은 모습이고, 이들의 삶이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남습니다.

-김은주(자유기고가)



△영화 '티벳에서의 7년'의 한 장면

니다. 하러가 티벳 처녀 재단사를 만나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에서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정말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벽을 타는 모습도 보여주고 울림에서 매달 탄 것도 보여주고 자기 자랑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그런 삶이었지요. 자랑스러운 얼굴로 상대의 열광적인 반응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티벳 처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두 나라의 인식이 얼마나 다른 지 알 수 있죠. 당신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고, 우리 그런 자아를 버리려고 하니까요."

티벳인들에게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보다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하러의 삶이 처녀의 눈에는 한심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의 가치관이

“전통사찰 누전으로 인한 화재에 취약”

총무원 문화부 '주요사찰 전기안전진단 보고서' 발간



△자료사진 : 낙산사 소방훈련

상태와 전선의 재질이 노후화됐고, 누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차단하는 설비가 부족했다. 또 일부사찰에서는 무리하게 전선을 나눠 쓰는 '문어발식' 배선방식을 취하고 있어 전기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찰의 전기안전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등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했다.

전통사찰을 비롯해 목조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전국 주요사찰의 전기시설이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최근 발간한 <주요사찰 전기안전 진단 및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문화부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 등 주요 목조문화재를 보유한 전국 33개 사찰들을 대상으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물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점검을 받은 사찰의 대부분이 전기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찰 내 주요 건축물의 내·외부 배선

때문에 이 보고서는 △문화재시설의 전기소방시설에 대한 법정기준 마련 △화재 시 내열성이 강한 특수 케이블 사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여부 정기점검 △전문 업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 및 시공 △자동감지, 원격제어 등 지능형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전기시설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예방전각에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양산 통도사, 전기수전시설을 2군데로 나눠 과부하를 방지한 합천 해인사, 고압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고 있는 수덕사, 건물의 분전함을 건물과 일정거리를 두어 설치한 부석사 등을 전기시설 관리 및 시공 우수사례로 꼽았다.

“일제고사 부당징계 철회하라”

불교인권위 비롯 불교계 사회단체 규탄 집회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스님) 등 불교사회단체들은 '일제고사 부당징계철회 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8일 "일제고사 강행을 중단하고 7인의 교사에 대한 파면, 해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진관스님을 비롯한 인권위 소속 스님들과 중앙신도회 사회연대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일제고사 반대로 징계를 받은 최혜원 교사(서울 김동초)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일제고사반대 교사징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모았다.

대책위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의 정신적 가치를 해치는 교육 상업주의를 전개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무더기 해직하는 지금이 과연 2000년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교육관은 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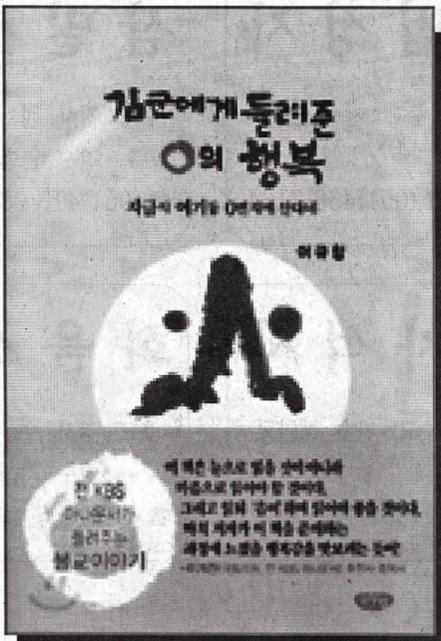
학생 때부터 경쟁과 서열을 부추겨 평화와 공생의 감수성을 죽이고 있다. 사회 비판적 문제 제기를 소중히 여긴 교사는 교단에서 쫓아내는 등 20년 동안 괴담 흘러 이른 교육 민주화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시교육청과 교육감은 징계를 철회하고 상처 받은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무자비한 경쟁주의 특권층 중심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보판

『김군에게 들려준 0의 행복』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학부분 우수교양도서 선정

전 KBS 아나운서, 천주교신자 들려주는 아주 새로운 불교이야기!



2009년 석가탄신일에 즈음하여 일본에서도 출간예정 (일본 NHK 국장 후지모토 PD번역)

0의 행복은 행복의 황금률이다! 붓다의 깨달음을 '음식의 맛과 0'의 키워드로 풀다!

나의 한국어 스승인 존경하는 이규항 선생님께서 불교에 관한 수필집을 출간하셨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이게 바로 인연인 것인가? 이 수필집을 좋은 안내역으로 무(無)와 무한(無限)에 느꼈을 행복감을 맛보려는 듯이!

깊은 사려와 직관에서 비롯한 영혼의 울림 -석성우 스님 (불교TV회장)

석가모니부처님의 밥의 향기와 0의 행복이 가득 담긴 이 책을 보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고광수 (중국 북경방송 CRI교수)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죠. 이 책은 그 해답을 당신께 제시합니다. -손범수 (방송인, 전 KBS 아나운서)

나의 마음자리는 어디일까를 가늠하며 한번더 꼼꼼히 읽어볼까 합니다. -정은아 (방송인, 전 KBS 아나운서)

- 후지모토 토시가스(NHK 국제방송국 CP) 추천사 중에서

이규항 著 / 글누리/정가 9,000원



교계소식

“4대강 정비사업, 생태계 파괴만 초래”

‘운하건설 반대 전국교수모임’ 긴급토론회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은 12월 22일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국제회의장에서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14조원을 들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지난 15일 발표되자, 각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이 지난 12월 22일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 긴급토론회에서는 “타당성 검증도 마치지 않은 급조된 하천정비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세종대 변창홍(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교수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대운하사업과 동일한 성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교수모임 긴급토론회

격과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하천이 위락과 주운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조해 본래 기능인 치수·이수·생태보전 기능이 훼손되거나 상실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정부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며 내세운 명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 교수는 “홍수

억은 홍수가 빈번했던 지류가 아닌 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보를 세워 물을 가둬두는 현 정비사업은 수질개선 효과도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회로 나선 서울대 김종욱 교수는 “1조2000억원을 쓴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우리나라 지도가 바뀌었는데, 14조원을 4년 안

에 강에다 쏟아 부으려면 얼마나 많이 파헤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하는 지 짐작할 수 있겠나”고 반문하며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하천정비사업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공사내용은 많이 줄었지만 사업비와 기간은 똑 같다”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1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사업에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도 “정부가 국민의 의혹을 사가며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부양책을 내놓은 속내에 대운하사업에 대한 미련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토목공사를 신주단지처럼 모실 것이 아니라 교육, 사회복지, 연구개발,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경기부양효과를 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수모임은 이날 지난 5월 ‘한반도 물길 잇기와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대운하’라고 폭로한 김이태 박사에 대해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보복성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법정스님 “경제위기에 기죽지 말자”

길상사 창건 11주년 법회



법정스님

법정 스님은 12월 14일 최근의 경제 위기에 대해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간 탐욕이 빚은 과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어려움도 한두 해가 지나면 풀릴 것이니 이럴 때일수록 기죽거나 휘말리지 말자”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서울 성북2동 길상사의 창건 11주년 법회에서 행한 법문을 통해 “맑은 정신으로 (경제 위기) 배후의 뜻을 냉철히 보고 새로운 각오로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을 배우자”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위기는 그때그때 마무리를 짓지 않은 안이한 삶 탓에 빚어졌다”고 진단하면서 “성장 위주의 정책과 무절제한 고도 부도덕한 경제 팽창은 한정된 자원으로 지속할 수 없으며, 이는 천연자원을 착취하고

미래 세대의 몫을 빼앗는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위기는 인간의 탐욕에 재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며 “지구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고 여러 나라마다 뉴질랜드를 추진하고 있는 데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이는 탐욕을 경고하는 것이자 분에 넘치는 ‘풍요의 환상’에서 깨어나라는 뜻을 전한다”며 “잘못 길든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일대 전환해 인간의 품위와 도리를 지키고 사람답게 살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70년대 석유 파동을, 90년대 말 외환 위기도 극복했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번 위기도 한두 해가 지나면 풀린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죽거나 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배후의 뜻을 냉철히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정 스님은 “12월은 마무리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그때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해 각오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삶을 배우자”는 말로 법문을 마쳤다.

이날 1500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문에서 법정 스님은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한 날카로운 지적과 더불어 ‘지혜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불교방송 IPTV 전파송출

불교방송이 12월 2일 오전 5시부터 KT의 실시간 IPTV서비스인 ‘메가TV 라이브’에 첫 전파를 송출했다.

전국 8개 지상파 라디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BBS 불교방송은 KT의 종교분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신청해 채

널번호 550번을 부여받았으며 이날부터 24시간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IPTV는 TV시청 도중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쇼핑 등과 같은 T-커머스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의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다.

밀교호국성지 사천왕사지 위용 드러나

경주문화재연구원 12월 10일 발굴현장설명회



◇사천왕사지 유적에서 발굴된 동탑지의 녹유전

통일 신라 문무왕 19년(679)에 창건된 호국도량 경주 사천왕사의 기암배치와 그 위용이 드러났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12월 10일 경주시 배반동 사천왕사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2006년부터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경주 사천왕사지(사적 제8호)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조사 내용과 성과를 관계 전문가 및 일반에 공개했다.

사천왕사는 2기의 목탑(木塔)이 배치된 쌍탑식(雙塔式)의 전형적인 통일신라 기암모습을 처음으로 보이는 곳이다. 특히 신문왕 2년(682년)에 창건된 김은사 동·서 삼층석탑과 함께 당시의 건축과 미술·한국 사찰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탑지를 비롯해 동·남 회랑지, 중문지, 추정단석지(불교의례를 행하는 장

“정각회 보좌해 불교 외호에 최선”

국회직원불교신도회 회장 김창호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김창호 회장

(44)은 “국회 직원들의 단합을 이끌고, 국회의원 불자모임 정각회를 도와 종교편향을 예방하는 등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년동안 117명 국

회사무처 직원들의 신생활동을 이끌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하태수 전임회장이 4년동안 잘 이끌어 온 것을 본받아 더욱 신심 깊은 불자회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창호 회장은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통령후보 방송특별보좌역,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쳤으며 지난 7월 김형오 국회의장 공보수석으로 임명됐다. 한나라당 소속 당시 불자회 활동도 활발히 펼친 바 있다.

생활상식

◀ 카데킨이 풍부한 홍차로 입안을 행구면 감기 예방

홍차에 함유된 카데킨의 살균작용은 목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 홍차에 설탕을 약간 타 주면 아이도 잘 마신다. 감기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뒤에는 홍차로 입안을 행구면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식초 생강으로 감기를 예방

살균 효과가 뛰어난 식초와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생강을 이용한 ‘식초 + 생강’. 맛이 좋은 데다 감기 예방 효과도 뛰어나므로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 두고 섭취한다. 병에 저민 생강

과 뜨거운 물, 식초를 넣는다. 뜨거운 물과 식초의 비율은 2 : 1이며, 취향에 따라 벌꿀을 첨가해도 좋다. 식으면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꾸준히 먹는다. 반나절 뒤에 먹을 수 있다.

◀ 목의 통증과 기침에 좋은 무 + 벌꿀

무의 매운 맛 성분이 갖고 있는 살균력과, 짓무를 증상을 완화해 주는 벌꿀의 효과를 이용한 다. 1 cm로 깎쪽썰기 한 무를 용기에 넣고 벌꿀을 넉넉히 넣는다. 다음, 30 분 이상 푼다. 우리나라 국물과 무를 함께 먹으면 된다.

◀ 화상을 입었을 때는 감자로 습포하여 응급처치

감자는 소염, 해독, 진통의 효과가 있다. 껍질을 벗긴 감자를 강판에 갈아 꼭 짜서 고풍물을 떼낸 상처 위에 얹는다. 램이나 양

배추 잎으로 감싸서 수분의 증발을 막아 주면 응급처치 완료. 상처가 심할 때는 즉시 병원으로 갈 것.

◀ 벌레 물린 데는 소금을 발라 통증과 가려움을 억제

가볍게 벌레 물린 자국에는 염증을 억제하고 가려움을 진정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는 소금을 바른다. 심하게 부어 올랐을 때는 피부에 물을 묻혀 소금을 5 mm 정도 높이로 얹은 뒤에 반창고를 붙인다.

◀ 식초 물에 발을 담가 발 냄새 제거

대야에 물을 붓고 식초 1 작은 술을 첨가한 다음 발을 담그면 발 냄새가 없어진다. 여름철과 외출했다 돌아온 뒤에는 식초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제1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모집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는

불교 상제례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무서비스를 교육받아 장례 관련 업체, 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상가봉사조직 등 운영 및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는 전문직종입니다.

1. 교육기간 : 2009년 1월 13일 ~ 7월 11일 (6개월 과정 총 160시간)
2.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3. 수강인원 : 40명 (등록 선착순으로)
4. 수 강 료 : 80만원 (교재포함)
5. 장 소 :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 (조계사 옆)
6. 신청서류 : 수강신청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7. 강 사 진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출신 석·박사

등록후 바로 현재 진행되는 정규반, 통합반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강의를 3번 하므로 편리한 시간에 맞춰 수강하시면 됩니다.

● 수료 후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

현재 정규반 : 매주 (화) 오후 7시 ~ 9시30분, 매월 1,3주 (토) 오후4시~8시
통합반 : 매월 1,3주 (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특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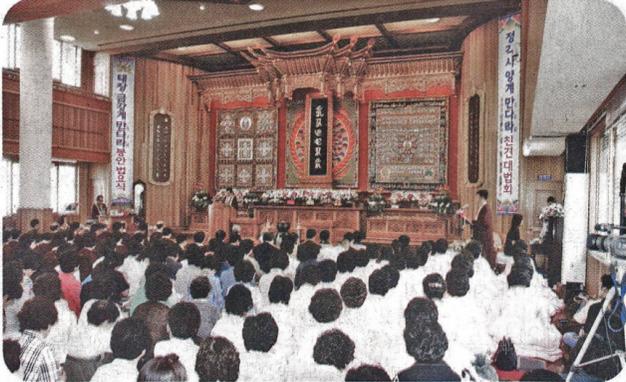
1. 2인이상 등록시 각각 10% 할인
2. 수료 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F.B.A.과정 등록 시 등록금 30% 할인
3. 상위 5%이내 성적우수자 취업 보장

(준)불교생활의례문화원 02)723-0444



화보로 보는 2008년 이모저모

엄격한 계율정신과 청정수행으로 중풍을 확립하고, 화합과 단결로 종단운영 내실화와 다양한 행사를 원만히 수행한 한 해였습니다.



▶ 부산 정각사(正覺寺) 양부 만다라 봉안 불사 회향

불교총지종 포교 거점 도량 부산 정각사가 5월 26일 태장계, 금강계 양부 만다라 봉안불사를 원만 회향했다. 이외에도 올해 1월 지인사를 비롯해 시법사, 지식사, 성화사가 만다라 봉안불사를 봉행했다.

총지종 양부 만다라는 육자진언 본존의 좌측에 태장계 만다라, 우측에는 금강계 만다라가 봉안되어 있다. 태장계 만다라엔 종대팔엽원을 중심으로 414존의 불보살을, 금강계 만다라는 아홉 개의 소만다라에 1,461존의 제불보살을 모시고 있다.

▶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성료

불교총지종이 주관하는 제2차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총지종 교육원 주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관광부 후원)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서울과 강원도 원주시 등에서 개최됐다.

개막일 16일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환영만찬이 있었으며 17일에는 '재가불교의 철학과 실천'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려 각국 참가자들이 의견발표를 했다. 18일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템플스테이활동과 주제별 토론, 19일엔 서울에서 한국문화소개프로그램 참여, 전통문화공연 관람 등이 마련됐다.

▶ 수인사, 성화사 득락전(得樂殿), 아미타 삼존불 봉안가지불사

포항 수인사와 부산 성화사가 득락전 및 아미타 삼존불 봉안 가지불사를 봉행했다.

득락전은 종조 원정대성사가 생전에 명명한 것으로 세상의 인연이 다한 망자가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구경성불할 것을 기원하는 곳이다.



▶ '총지종보' 100호 발행

1995년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내걸고 창간된 총지종보가 2008년 3월호로 지령 100호를 돌파했다.

총지종보는 1995년 10월 16일 8면으로 창간된 이래 2004년 9월 12면 증면, 2005년 12월 증보 편집위원회 구성, 2006년 11월 홈페이지 온라인 서비스 개시, 2007년 12월 전국 사원 중보통신원 발대식 거행, 등 양적 질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해 왔다.

이번 100호 발행으로 총지종은 100호 발간 신문을 보유한 몇 안 되는 종단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 총지종 청소년 수련법회 회향

총지종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2차에 걸쳐 경남 남해 한려유스호텔에서 여름 청소년 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8회차인 이번 수련법회에선 종단산하 전국 각 사원의 어린이와 청소년, 종립 동해중학교 학생, 교도 가족,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수행과 공동체 교육, 자연탐방 활동 등의 주제별 프로그램으로 열린 이번 수련법회에선 입제식과 종단소개를 비롯해 모듬 활동, '유마니반메홀' 시경, 조식 정중, 염주만들기, 바다 래프팅, 장기자랑, 등이 다양하게 실시됐다.



▶ 춘·추계 강공회 원만회향

4월과 10월 서울 통리원에서 개최된 춘·추계 강공회가 원만 회향했다.

춘계 강공회에선 각 사원의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득락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부산 성화사, 포항 수인사, 등에 극락전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와함께 '종단 현황과 발전 심포지엄'에선 각 교구별 발표자가 나서 종단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과 관련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 8·27 범불교도대회

8월 27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봉행된 범불교대회에 20여만 사부대중이 '헌 법파피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봉행하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종단협의회 의장·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등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산하 주요 종단 관계자들과 전국의 불교도 20여만명이 동참했다.



▶ 총지종 바라밀 재가 장기요양센터 개소

총지종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가 개원했다.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는 앞으로 환지도우미 지원을 중심으로 노인장기요양, 전문매체, 요양인력 양성, 인력 아웃소싱, 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이번 바라밀 재가장기요양센터 개원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것이다.



▶ 제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참가

제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불교도의 환경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라미다 호텔 등지에서 개최됐다.

대회 이튿날 제주 관음사에서는 불교총지종 원수 통리원장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들이 동북아 역사문화 발전과 세계평화 인류화합, 지구촌 환경보호를 기원하는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상조회 '미타회' 출범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상조회인 미타회가 서울경인교구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3월 11일 서울 총지사에서 출범식 법회를 봉행하였다.

미타회는 자비와 나눔의 봉사와 상부상조를 통해 극락정도를 구현하는 의미에서 명칭을 따왔으며, 서울경인교구 전교도들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 상·장례 등 애사가 발생했을 때 무료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도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는 봉사단체 성격을 지닌다.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개정 신판 발간

총지종 법장원이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개정신판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행된 '정통밀교 불교총지종'은 △입교개조 △교의대강 △유마니반메홀 △총지종 지표 △밀교란 무엇인가 △밀교의 역사 △육합상해설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칼라 사진과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어 대내외적으로 종단 홍보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종단 소개책자 '정통밀교 불교총지종'은 '82년 초판이 간행된 이래 '88년 증보판이 나온 바 있다.



▶ 불기 2552년 연등축제 참가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5월 12일)을 앞두고 불교계가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다채로운 봉축행사를 마련했다. 총지종도 공중복과 아름다운 전통의상으로 치장한 기수단과 서울 경인지역 등의 스승과 교도들이 참석해 축제에 참가했다.

인사발령 (12월 24일자)

| | | | | | |
|------------------------------------------------------------------------------------------------------------------------------------------|--------------------------------------------------------------------------------------------------------------------------------------------|-------------------------------------------------------------------------------------------------------------------------------------------|--------------------------------------------------------------------------------------------------------------------------------------------|--------------------------------------------------------------------------------------------------------------------------------------|----------------------------------------------------------------------------------------------------------------------------------------|
| 정각사 법공  정각사 주교근무를 면함. 기로스승에 명함.(충기38. 1. 1) | 정각사 공덕성  정각사 주교근무를 면함. 기로스승에 명함.(충기38. 1. 1) | 국광사 우승  국광사 주교근무를 면함. 기로스승에 명함.(충기38. 1. 1) | 국광사 묘설계  국광사 주교근무를 면함. 기로스승에 명함.(충기38. 1. 1) | 덕화사 대원  덕화사 주교근무를 면함. 정각사 주교근무를 명함. | 덕화사 정인화  덕화사 주교근무를 면함. 무를 명함. |
| 밀인사 법등  밀인사 주교근무를 면함. 덕화사 주교근무를 명함. | 밀인사 인덕심  밀인사 주교근무를 면함. 덕화사 주교근무를 명함. | 벽룡사 원당  벽룡사 주교근무를 면함. 밀인사 주교근무를 명함. | 벽룡사 묘심해  벽룡사 주교근무를 면함. 밀인사 주교근무를 명함. | 단음사 안성  단음사 주교근무를 면함. 국광사 주교근무를 명함. | 단음사 유가혜  단음사 주교근무를 면함. 국광사 주교근무를 명함. |
| 총지사 법일  총지사 주교근무를 면함. 벽룡사 주교근무를 명함. | 총지사 자행정  총지사 주교근무를 면함. 벽룡사 주교근무를 명함. | 정각사 지현  정각사 주교근무를 면함. 단음사 주교근무를 명함. | 법장원 화령  총지사 주교근무를 면함. 단음사 주교근무를 명함. | 밀교연구소 범경  총지사 주교근무를 면함. 단음사 주교근무를 명함. | 사회복지재단 지정  총지사 주교근무를 면함. 단음사 주교근무를 명함. |

한 해를 돌아보며

효강 중령님, 트리원장님과 전국의 교도분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정각사의 스승님, 각 지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지회장님과 신도분 모두 기쁘게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지나온 일들을 회고해 보니 갖가지 상념이 밀려 옵니다. 두서 없지만 자와 신진회, 편집팀 등 한 해 살림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총지사에서 충지정보의 통신원 모임을 3년전부터 시작하여 2007년 12월 27일에 전국의 통신원들이 총지사에 모여서 창립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초부터 충청전라교구 만보사를 필두로 대구경북교구 수인사, 단음사, 선림사와 부산경남교구의 정각사, 덕화사, 성화사를 순례하며 스승님들께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과 교도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요즈음에는 지방의 통신원들께서도 좋은 기사를 많이 보내 주시어 더욱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기사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종단에서도 편집팀 운영에 필요한 강의의 등에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종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승님들과 교도분들의 화합단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서울지회에서는 각 자립들의 모임인 단월회를 조직해 볼 계획입니다. 각자님들과 산행을 하면서 체력도 다지고 대화도 많이 나눌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세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입교하신 교도분들께서는 여러보살님들이 좀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계에 경제 환풍이 몰아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 불자들은 불공을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참회와 인욕바라미 공부를 하다보면 차츰 경제도 나아 지리라 생각합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 하시길 부처님께 기원 드립니다.

옵마니반메.



이인성 (충지사)

세상사는 이야기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아팠다. 연말 여러 가지 일이 겹쳐 처음에는 이른 졸도 몰랐다. 하루하루 잘도 버티더니 드디어 목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난 집에 있는 약을 찾아 먹고 봉사 하는 장소인 전시관으로 향했다. 찬 바람은 두툼한 코트로 완전 무장한 나에게 보란 듯이 웃 속까지 파고 들어온다. 바람에게 이기길라도 하려는 듯 옷깃을 여미고 격전지로 향하는 용사처럼 더욱 힘차게 걸었다.

전시관에 도착한 나는 기진 맥진이다. 먼저 언 몸을 녹이기 위해 커피를 뜨겁게 타서 후후 불어가며 마셨다. 커피 맛이 예전 같지 않다. 아무래도 감기에 심하게 걸린 것 같다. 혹시 독감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다.

이날 전시관에는 대학생 단체 예약이 있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 관람객에게 그들이 알기 쉽게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도슨트(해설자)의 역할인데 아파서 그 역할에 혹시 소홀하지 않았나 다시 생각해 본다.

소중함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 갈 것이며 내 감정의 폭도 얼마나 좁을 것이며 나의 삶의 질도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생각만 해도 싫다.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이 있어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롭고 즐겁고 든든하다고.....애들아, 내 친구가 되어 주어서 고맙다고.'

그들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이야기로 위로해 주고 늘 곁에서 지켜 줄 친구들이다. 나도 그들에게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고 어려울

까지 했다. 그날 저녁 송년 모임까지 간 것이 너무 무리였던 것 같다.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의 송년 모임에 내가 빠질 수는 없지. 친한 친구들과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송년 모임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지. 잘 한 이야기.'

발새도록 아팠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다행히 날이 밝으니까 아픈 것도 조금 나은 것 같다. 꼼짝도 하기 싫어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약만 사서 먹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쉬었다. 오늘 많이 좋아져서 밀린 일을 서둘러 하고 있다.

내 체력도 해가 지날수록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몇 년 동안 건너 뛰었던 건강 검진도 올해에는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12월의 반 이상이 지나 갔으니...

기계도 자주 손을 봐 줘야 하고 닭아 주고 기름도 발라 주어야 하는데, 난 나 스스로를 너무 보살펴 주지 못한 것 같다.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박묘정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어린 시절이러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친구들을 만날 때만이라도 옛날로 되돌아 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닐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 해를 맞이하며 나는 친구의 소중함을 더더욱 느끼게 된다. 인생을 살아 가는 데 가족들이 소중한 것은 물론이지만 친구들의

때 곁에 있어 주는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 우리 서로 날마다 연락하며 살고 있지는 않지만 어려울 때 전화 한 통하면 언제라도 찾아와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늘 마음이 든든하다.

친구들과 헤어져 돌아오는 길은 재충전이라도 한 듯 발걸음도 가벼웠다. 집에 도착한 후 잠점 열이 나기 시작했다. 온 몸이 추시고 오슬오슬 출기

총지사 박상우 군, 서울대 학장상

"유무형 전통 보전해야죠"



▲생각에 잠기다 - 스물 네번째. (원내 박상우 군)

총지사 박상우 군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작품전에서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학장상을 받았다. 수상작 '생각에 잠기다-스물네번째(227X182/장지에 수묵)'는 뛰어난 상상력으로 물과 석굴암 본존상을 정밀하게 묘사해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이번 작품은 서울대 미술관에 영구전시 된다. 이번 2008 서울 미술대 졸업작품전에는 동양화 20품을 비롯해 서양화, 조소, 디자인 등 100여 작품이 선보였다. 오는 2월 서울대 미술대 동양화과를 졸업할 예정인 박상우 군은 총지사 백지순 보살의 장남으로 재학 중 독일 등지에 머물며 실력을 연마하기도 했다.

알림방 ▶1월 5일부터 11일까지 새해불공을 봉행합니다.
▶11일 새해불공 회향일 오후 9시부터 철야정진기도가 있습니다.
▶15일 신년하례회가 열립니다.
▶26일 설 명절 기제사 불공이 있습니다(신청자에 한함).
▶29일은 종조탄신일입니다.

불교 충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 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내용

-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감사의글

불교충지종 사회복지재단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복지재단에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과 사회봉사활동에 지원하여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더 많은 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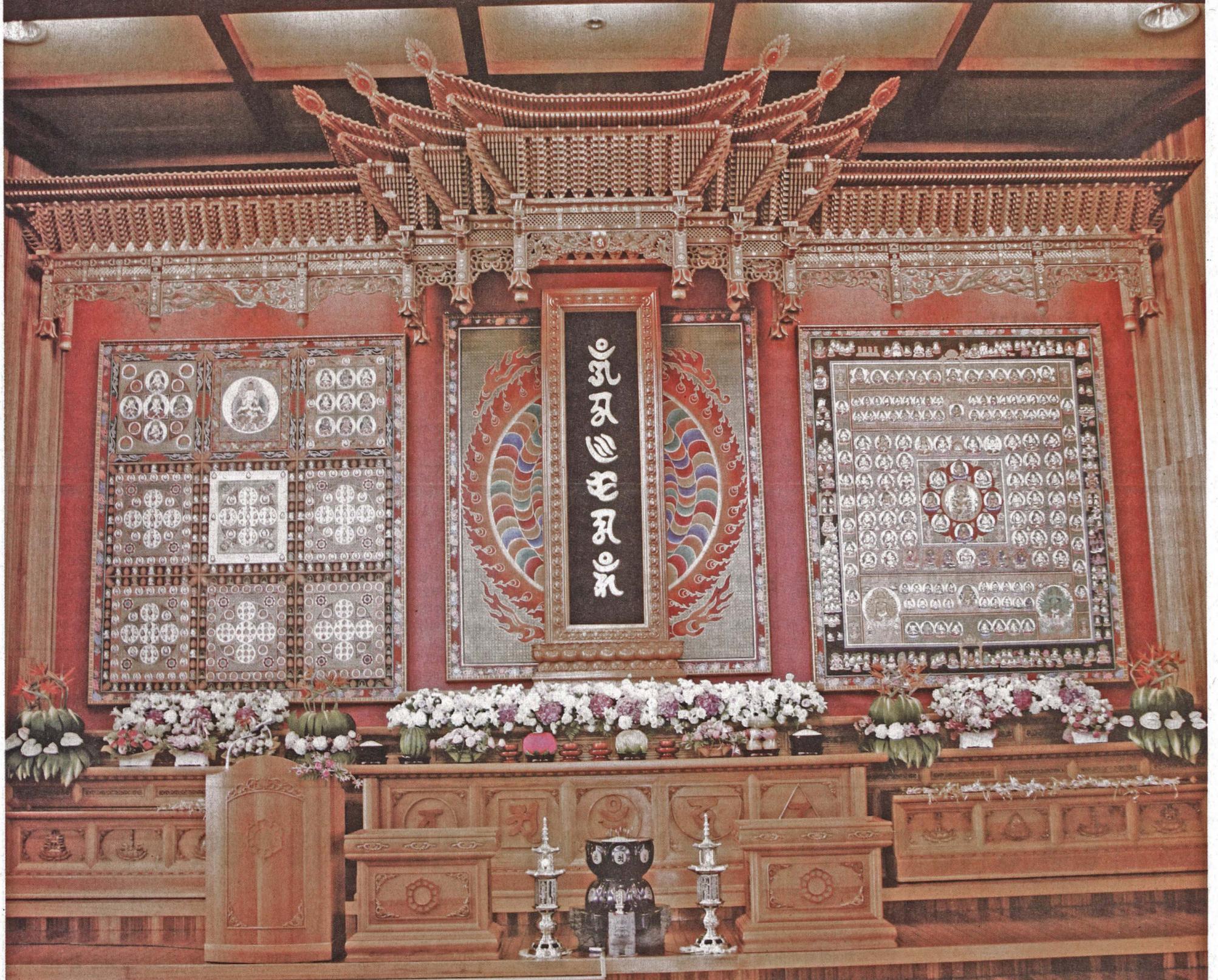
기꺼이 남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후원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불교충지종 사회복지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도량으로써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되새기며, 더욱 발전하는 복지재단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도합니다.

불교충지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원 송 합장

불교충지종 사회복지재단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謹賀新年



불교총지종

서울 강남구 역삼 2동 776-2 ☎ 02)552-1080-3 팩스 02) 552-1082 www.chongji.or.kr

새해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범신비로자나무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지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불교텔레비전 이사, 불교방송 이사,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
 한중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 종단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종단, 발전하는 종단이 되겠습니다.